

#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초등학교 아동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장 영 애  
인천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Multiple Intelligence

Jang, Young Ae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University of Incheon, Incheon,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multiple intelligence. 321 children selected from two elementary schools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multiple intelligence index,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index. The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he t-test, one-way ANOVA(Duncan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multiple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children's gender, income, mother and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multiple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parenting behavior, warmth · acceptance and permissiveness · nonintervention behaviors, and to the parent-child open communication and problematic communication. It was also found that children's gender, family income, warmth acceptance behavior, permissiveness · nonintervention behavior, open communication and problematic communication were all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children's multiple intelligence. Implications based on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order to increase the children' multiple intelligence, parents should be warmer and more accepting and have open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ren.

Key words: children's multiple intelligence, parenting behavior, parent-child communication

### I. 서론

현대 사회는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국가 간의 경쟁과 협력이 중요시

되는 사회로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성이 존재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인간은 창의적, 주도적, 자발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접수일: 2011년 1월 26일 심사일: 2011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 2011년 3월 7일

Corresponding Author: Jang, Young Ae Tel: 82-32-835-8254 Fax: 82-32-835-8250

e-mail: chae@incheon.ac.kr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없으므로, 21세기의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가진 인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정현숙 2005).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우리 교육은 다양한 개성, 능력, 적성을 지닌 아동들을 육성하는 것보다, 학습자의 특성이 무시된 채 똑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획일화된 교육을 실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로부터 개인의 특별한 능력이나 적성을 개발하기보다는 대학입시에 중점을 두고 단순한 지식 암기위주의 학업에만 매달리게 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특별한 특기나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낙오자로 여겨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특기나 소질이 무시되고 그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개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능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Gardner(1983)는 다중지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욕구, 흥미, 재능, 당면하고 있는 문제 등에 있어서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잠재력 개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개인의 존중과 개인차의 인정, 학습동기의 유발, 개별화된 수업 등 새로운 방법론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김명희 1998). 즉, 다중지능의 개념은 종래의 지능 개념이 인간의 능력이 갖는 다양성을 표현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지능을 '특정 문화권에서 중요한 문제해결 능력 혹은 문화적 산물을 창출해 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문제 해결력뿐만 아니라 사물의 창조력을 강조하여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문화의 자연스런 상황에서 그 문화권이 가지는 가치를 두고 있는 산물을 창조하는 능력을 지능으로 간주하였다(김현자 2004).

다중지능은 여덟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언어적 지능은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둘째로 논리·수학적 지능은 숫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해 내는 능력을 말하며, 셋째 공간적 지능은 시각적·공간적 세계를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과 그런 지각을 통해 형태를 바꾸

는 능력을 말한다. 넷째 음악적 지능은 음악적인 표현을 지각, 변별하거나 변형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며, 다섯째 신체·운동적 지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과 자신의 손을 이용해서 사물을 만들거나 몸을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능숙하게 변형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여섯째 대인관계 지능은 타인의 기분, 의도, 동기, 감정을 지각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일곱째 개인이해 지능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자기 지식에 기초하여 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덟째 자연주의 지능은 식물이나 동물과 같은 자연세계 또는 주변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생물체의 유형을 인지하는 능력을 말한다(Armstrong 1994). 이러한 Gardner의 다중지능 이론은 어느 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뒤떨어 질 수 있으며, 어느 한 분야에서 열등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바, 그러한 강점의 분야를 그들의 지능으로 인정함으로써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능력을 찾고, 나아가 아동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돕도록 한다는 데에서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Gardner(1997)는 다중지능의 특정 영역에서의 탁월한 능력은 유전적, 생물학적 특질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과 복합적인 상호 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지적한다. 환경요인 중 하나인 가정은 인간이 태어난 후 최초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학습하게 해 주는 장의 역할을 한다. 특히 태내에서부터 시작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부모는 자녀에게 삶을 위한 경험을 쌓게 해주고 동일시의 대상이 되며 최초의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부모는 자녀의 대인관계의 최초의 모델이며 교육의 책임자이고, 자녀의 성격형성의 주 결정요인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가정이라는 집단에서 제일 처음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가치관, 인생관, 도덕성을 습득하게 되는데, 특히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그 중에서도 부모 양육행동

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이다(Skeels 1996).

일반적으로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그 대행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정의하고 있으며 각 형태별로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뿐 아니라 정서 및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전선재 2003; 최영희 2004). 또한 아동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언어, 가치관, 지식, 능력 등을 습득한다. 왜냐하면 아동은 부모를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며,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고 어른들의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사회규범에 맞는 행동을 학습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지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규범을 학습하고, 자기표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과 관련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김창복 2004).

실제로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다중지능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동미(1997)는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대부분의 다중지능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아동의 대인관계 지능이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김향자(2000)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 때 대부분의 지능들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거부적인 양육태도일 때 낮은 점수를 보여, 아동의 다중지능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강인숙(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다중지능 전 영역들과 서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즉, 부모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인 양육태도로 아동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김은영(1997)은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음악적 지능, 신체·운동적 지능, 공간적 지능, 대인관계 지능, 개인이해 지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전선재(2003)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 개방, 친애, 자율로 지각하고 있는 아동일수록 높은 다중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아동의 다중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 개방, 친애, 자율 지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다중지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안말애(1985), 임은혜(2002)는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지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고, 조덕제(2001)는 부모가 애정·통제적 태도를 보일수록 음악지능이 높으며, 적대·자율적 태도를 보일수록 공간지능과 자연지능이 낮음을 보고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다중지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질을 결정해 줄 뿐 아니라 아동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의 하나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다. 가정 내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는 주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인간관계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Thomas 1977).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언어 속에 내포된 의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 시켜 나가기 때문에 부모와 대화하는 방식이나 태도, 내용에 따라 자아개념이나 인간성이 다르게 발달 할 수 있으며, 자녀의 학교 및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서로 간의 가치와 의사전달을 통한 내적 긴장완화에 따른 자신감과 안정감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들의 성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가정환경 내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여러 연구들에서 기능적이고 개방적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바람직한 인성의 형성과 지적능력의 개발, 창의성의 신장, 사회성 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김미호 1989; 남현

주 1997; 방문희 1992; 신수정 1994; 이인숙 1997)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백승미(2003)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른 아동의 다중지능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동의 다중지능 수준과 높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기능적이고 문제형인 의사소통은 아동들의 다중지능과 부적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다중지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권정애(2008)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역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다중지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의 관계를 본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아동의 다중지능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다중지능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음악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탐구지능 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영역 모두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영숙 등 2003). 김창복(2004)의 연구에서는 음악지능, 언어지능, 대인지능, 공간지능, 자연지능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때 자연지능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능에서는 여학생의 지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개인이해지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조덕제(2001)는 음악지능과 대인지능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고, 논리수학지능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음을 보고했다. 문용린과 김주현(2004)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신체·운동지능을 제외한 모든 지능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고학년의 경우 논리·수학지능과 자연지능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다중지능의 차이를 분석한 조덕제(2001)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다중지능이 높은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언어지능과 개인내지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강인숙(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특히 부모의 교육정도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일수록 음악, 신체·운동, 논리·수학, 언어, 대인관계, 개인이해, 자연주의 등 공간지능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지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김향자(2000)는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라 다중지능이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 월수입에 따른 아동의 다중지능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은 월수입이 높을수록 유아의 신체·운동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공간적 지능, 언어적 지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밝히고 있다(김향자 2000; 정대현 2006).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아동의 다중지능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다중지능의 차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른 다중지능의 차이를 분석하고, 다중지능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으로써 부모의 역할이 변화하고 축소되어가는 요즘,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다중지능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아동의 다중지능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개인적 특성이나 교육에의 적용가능성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이영만 1997; 정태희 1998; 최정민 2001),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다중지능,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의 관계만을 분석했지, 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두 변인이 아동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장과정

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그 중에서도 아동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인 부모 양육행동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은 아동의 다중지능에 관련되는 부모변인의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타고난 적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약점 지능의 보완 가능성이 큰 시기인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초등학교 아동의 다중지능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다중지능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지적특성을 이해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환경조성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또한 아동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발견하여 개개인의 아동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조성하게 하고,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을 위한 효율적인 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아동의 다중지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다중지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라 아동의 다중지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아동의 다중지능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 양육행동,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2개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각 학교의 4, 5, 6학년 학생 321명과

그들의 부모 3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은 비교적 척도에 대해 신뢰롭게 응답할 수 있고, 아동의 타고난 적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약점 지능의 보완 가능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                       | Variable    | N   | %    |
|-----------------------|-------------|-----|------|
| Grade                 | 4th         | 105 | 32.7 |
|                       | 5th         | 109 | 34.0 |
|                       | 6th         | 107 | 33.3 |
| Gender                | male        | 142 | 44.2 |
|                       | female      | 179 | 55.8 |
| Income<br>(10,000won) | under 200   | 96  | 29.9 |
|                       | 200-300     | 94  | 29.3 |
|                       | over 300    | 131 | 40.8 |
| Father<br>education   | high school | 168 | 52.3 |
|                       | college     | 51  | 15.9 |
|                       | university  | 102 | 31.8 |
| Mother<br>education   | high school | 216 | 67.3 |
|                       | college     | 46  | 14.3 |
|                       | university  | 59  | 18.4 |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아동의 다중지능 척도,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이다.

#### 1) 다중지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다중지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Shearer(1997)가 개발한 MIDAS for KIDS - "All About Me"를 김현자(2004)가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총 82문항으로 다중지능 유형을 측정하는 8개의 하위변인(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지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중지능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음악지능 .85, 신체·운동지능 .80, 논리·수학지능 .79, 공간지능 .83, 언어지능 .88, 대인관계지능 .88, 개인이해지능 .81, 자연지능 .85로 나타났다.

## 2)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한 자신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영애(1995)의 양육행동척도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세 하위변인(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총 8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각 하위변인 당 12문항씩을 선정하여 총 36문항을 사용한 장영애와 이영자(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 중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에 대한 애정 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등의 부모 행동이 포함되며,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아동에 대한 불만,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등의 행동들이 포함된다.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주는 익애·굴복형, 허용과 무책임, 무관심형 방임 등의 행동들이 포함된다.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는 '아주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행동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온정·수용 .88, 거부·제재 .86, 허용·방임 .77로 나타났다.

##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s와 Olson (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검사인 PACI(Parent 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를 민혜영(1991)이 수정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개방성의 정도와 문제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2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주제 선택에 조심을 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사소통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개방형이 .83, 문제형은 .73으로 나타났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인천광역시 소재 2개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4, 5, 6학년 학생 321명과 그들의 부모 3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는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은 후, 아동용과 부모용을 각각 360부씩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중 대답이 불성실하거나, 아동용, 혹은 부모용만 회수된 질문지를 제외한 321부가 실제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는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Duncan의 사후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다중지능의 차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다중지능의 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른 아동의 다중지능의 차이, 아동의 다중지능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분석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다중지능의 차이

먼저 본 연구 대상 아동의 다중지능의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ves of the children's multiple intelligence

|                                   | M     | SD   |
|-----------------------------------|-------|------|
| Musical intelligence              | 31.60 | 7.62 |
| 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 34.83 | 6.99 |
|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 33.13 | 6.47 |
| Spatial intelligence              | 29.47 | 7.37 |
| Linguistic intelligence           | 35.85 | 8.22 |
| Interpersonal intelligence        | 44.17 | 8.92 |
| Intrapersonal intelligence        | 36.46 | 6.39 |
| Naturalist intelligence           | 39.27 | 9.12 |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다중지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동의 다중지능은 아동 성별, 월수입,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음악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지능과 공간지능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논리·수학지능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Table 3.** Difference in children's multiple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

|                     |             | Musical intelligence    |           |       | 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         |       |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          |    | Spatial intelligence    |           |   |
|---------------------|-------------|-------------------------|-----------|-------|---------------------------------|---------|-------|-----------------------------------|----------|----|-------------------------|-----------|---|
|                     |             | M                       | t/F       | D     | M                               | t/F     | D     | M                                 | t/F      | D  | M                       | t/F       | D |
| Grade               | 4th         | 29.04                   |           |       | 34.74                           |         |       | 32.04                             |          |    | 29.59                   |           |   |
|                     | 5th         | 30.68                   | 2.302     |       | 34.41                           | 1.669   |       | 32.24                             | .132     |    | 29.87                   | .639      |   |
|                     | 6th         | 30.95                   |           |       | 33.13                           |         |       | 32.47                             |          |    | 28.77                   |           |   |
| Gender              | male        | 27.31                   | -7.019*** |       | 33.36                           | -1.670  |       | 33.86                             | 4.316*** |    | 27.38                   | -4.493*** |   |
|                     | female      | 32.50                   |           | 34.65 | 30.99                           |         | 30.99 |                                   |          |    |                         |           |   |
| Income (10,000 won) | under 200   | 29.39                   |           |       | 33.44                           |         |       | 30.64                             |          | A  | 28.31                   |           |   |
|                     | 200-300     | 30.30                   | .977      |       | 33.96                           | .822    |       | 32.26                             | 6.645*   | AB | 29.81                   | 1.380     |   |
|                     | over 300    | 30.73                   |           |       | 34.62                           |         |       | 33.59                             |          | B  | 29.85                   |           |   |
| Father education    | high school | 29.55                   |           |       | 33.74                           |         |       | 31.27                             |          | A  | 29.14                   |           |   |
|                     | college     | 31.08                   | 1.704     |       | 34.65                           | .541    |       | 31.85                             | 7.653**  | A  | 29.67                   | .170      |   |
|                     | university  | 30.97                   |           |       | 34.48                           |         |       | 34.18                             |          | B  | 29.61                   |           |   |
| Mother education    | high school | 29.24                   |           | A     | 33.93                           |         |       | 32.15                             |          |    | 29.16                   |           |   |
|                     | college     | 31.93                   | 6.076*    | B     | 34.60                           | .199    |       | 32.83                             | .578     |    | 29.56                   | .358      |   |
|                     | university  | 32.39                   |           | B     | 34.31                           |         |       | 33.02                             |          |    | 30.09                   |           |   |
|                     |             | Linguistic intelligence |           |       | Interpersonal intelligence      |         |       | Intrapersonal intelligence        |          |    | Naturalist intelligence |           |   |
|                     |             | M                       | t/F       | D     | M                               | t/F     | D     | M                                 | t/F      | D  | M                       | t/F       | D |
| Grade               | 4th         | 34.93                   |           |       | 42.48                           |         |       | 35.41                             |          |    | 37.74                   |           |   |
|                     | 5th         | 36.98                   | 1.863     |       | 42.84                           | .893    |       | 36.34                             | .835     |    | 40.63                   | 2.622     |   |
|                     | 6th         | 35.38                   |           |       | 43.94                           |         |       | 36.39                             |          |    | 39.13                   |           |   |
| Gender              | male        | 33.54                   | -4.469    |       | 42.33                           | -1.440  |       | 35.54                             | -1.288   |    | 38.85                   | -.575     |   |
|                     | female      | 37.54                   |           | 43.67 | 36.43                           |         | 39.45 |                                   |          |    |                         |           |   |
| Income (10,000 won) | under 200   | 33.47                   |           | A     | 40.70                           |         | A     | 34.98                             |          |    | 37.65                   |           |   |
|                     | 200-300     | 36.03                   | 5.805**   | B     | 42.93                           | 7.204** | AB    | 36.06                             | 2.605    |    | 39.06                   | 2.480     |   |
|                     | over 300    | 37.19                   |           | B     | 44.88                           |         | B     | 36.88                             |          |    | 40.41                   |           |   |
| Father education    | high school | 34.70                   |           | A     | 41.86                           |         | A     | 35.39                             |          | A  | 39.08                   |           |   |
|                     | college     | 35.81                   | 3.849*    | AB    | 42.30                           | 6.605*  | A     | 35.72                             | 3.898*   | AB | 39.20                   | .085      |   |
|                     | university  | 37.55                   |           | B     | 45.55                           |         | B     | 37.50                             |          | B  | 39.56                   |           |   |
| Mother education    | high school | 34.78                   |           | A     | 42.43                           |         | A     | 35.91                             |          |    | 39.20                   |           |   |
|                     | college     | 38.10                   | 5.272**   | B     | 43.78                           | 3.267*  | AB    | 35.98                             | .727     |    | 39.59                   | .032      |   |
|                     | university  | 37.95                   |           | B     | 45.54                           |         | B     | 37.02                             |          |    | 39.17                   |           |   |

\*p<0.5 \*\*p<0.1 \*\*\*p<0.01

대인관계지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논리·수학지능은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300만원 이상인 집단이 높게 나타났고, 언어지능에서는 2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200만원~300만원 미만인 집단과 300만원 이상인 집단이, 대인관계지능에서는 2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300만원 이상인 집단의 아동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아버지학력에 따라서는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논리·수학지능과 대인관계지능에서는 아버지학력이 고졸이하 집단과 전문대졸 집단보다 대졸이상 집단이, 언어지능과 개인이해지능에서는 고졸이하 집단보다 대졸이상 집

단의 아동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학력에 따라서는 음악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음악지능과 언어지능에서는 고졸이하 집단보다 전문대졸과 대졸이상 집단이, 대인관계지능에서는 고졸이하 집단보다 대졸이상 집단의 아동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음악지능과 공간지능에서는 여아가, 논리·수학지능에서는 남아가 높게 나타났고, 월수입이 높을수록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이 높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음악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 in children's multiple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parenting behavior

|                                   |        | Musical intelligence    |        |       | 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          |       |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          |       | Spatial intelligence    |        |       |
|-----------------------------------|--------|-------------------------|--------|-------|---------------------------------|----------|-------|-----------------------------------|----------|-------|-------------------------|--------|-------|
|                                   |        | M                       | t/F    | D     | M                               | t/F      | D     | M                                 | t/F      | D     | M                       | t/F    | D     |
|                                   |        | Warmth • acceptance     | high   | 30.95 |                                 |          | 34.95 |                                   |          | 33.54 |                         | A      | 30.88 |
|                                   | middle | 29.70                   | .851   |       | 33.82                           | .915     |       | 32.07                             | 3.920*   | AB    | 27.95                   | 4.102* | B     |
|                                   | low    | 30.35                   |        |       | 33.88                           |          |       | 31.26                             |          | B     | 29.35                   |        | AB    |
| Rejection • restriction           | high   | 29.97                   |        |       | 33.81                           |          |       | 31.81                             |          |       | 28.6                    |        |       |
|                                   | middle | 30.69                   | .327   |       | 35.24                           | 1.163    |       | 33.70                             | 2.355    |       | 30.58                   | 2.186  |       |
|                                   | low    | 30.56                   |        |       | 33.85                           |          |       | 32.31                             |          |       | 30.11                   |        |       |
| Permissiveness • non-intervention | high   | 29.38                   |        |       | 32.93                           |          | A     | 31.65                             |          |       | 29.11                   |        |       |
|                                   | middle | 30.12                   | 1.992  |       | 34.01                           | 3.850*   | AB    | 33.06                             | 1.464    |       | 29.46                   | .170   |       |
|                                   | low    | 31.38                   |        |       | 35.62                           |          | B     | 32.53                             |          |       | 29.73                   |        |       |
|                                   |        | Linguistic intelligence |        |       | Interpersonal intelligence      |          |       | Intrapersonal intelligence        |          |       | Naturalist intelligence |        |       |
|                                   |        | M                       | t/F    | D     | M                               | t/F      | D     | M                                 | t/F      | D     | M                       | t/F    | D     |
| Warmth • acceptance               | high   | 37.78                   |        | A     | 45.58                           |          | A     | 38.14                             |          | A     | 40.96                   |        | A     |
|                                   | middle | 34.66                   | 4.480* | B     | 41.52                           | 7.475*** | B     | 35.10                             | 9.695*** | B     | 38.22                   | 3.096* | B     |
|                                   | low    | 35.21                   |        | B     | 42.17                           |          | B     | 34.94                             |          | B     | 38.27                   |        | B     |
| Rejection • restriction           | high   | 35.32                   |        |       | 42.39                           |          |       | 35.13                             |          | A     | 38.22                   |        |       |
|                                   | middle | 36.97                   | .996   |       | 44.30                           | 1.653    |       | 37.30                             | 4.563*   | B     | 40.97                   | 2.216  |       |
|                                   | low    | 35.72                   |        |       | 43.96                           |          |       | 37.22                             |          | B     | 39.30                   |        |       |
| Permissiveness • non-intervention | high   | 34.83                   |        |       | 41.48                           |          | A     | 34.37                             |          | A     | 37.64                   |        | A     |
|                                   | middle | 35.91                   | 2.074  |       | 44.05                           | 3.394*   | B     | 36.63                             | 7.335*** | B     | 40.38                   | 3.187* | B     |
|                                   | low    | 37.24                   |        |       | 44.18                           |          | B     | 37.61                             |          | B     | 40.48                   |        | B     |

\*p<.05 \*\*\*p<.001



2.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다중지능의 차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다중지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이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점수의 분포에 따라 각각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먼저 부모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에 따라서는 아동의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지능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논리·수학지능은 부모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공간지능은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이 중간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지능은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이 중간이거나 낮은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부·제재 양육행동에 따라서는 개인이해지능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 거부·제재 양육행동 높은 집단이 중인 집단과 하인 집단보다 개인이

해지능이 낮았다.

허용·방임 양육행동에 따라서는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지능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신체·운동지능은 허용·방임 양육행동이 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낮았으며,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지능은 허용·방임 양육행동이 상인 집단이 중인 집단과 하인 집단 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부모가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지능이 높았으며, 부모가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적게 할수록 아동의 개인이해 지능이 높았고, 부모가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적게 할수록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지능이 높았다.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른 아동의 다중지능의 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른 아동의 다중지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

Table 5. Difference in children's multiple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                           |        | Musical intelligence    |         |       | 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        |       |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          |       | Spatial intelligence    |         |       |
|---------------------------|--------|-------------------------|---------|-------|---------------------------------|--------|-------|-----------------------------------|----------|-------|-------------------------|---------|-------|
|                           |        | M                       | t/F     | D     | M                               | t/F    | D     | M                                 | t/F      | D     | M                       | t/F     | D     |
|                           |        | Open communication      | high    | 31.05 |                                 |        | 35.13 |                                   |          | 33.11 |                         | B       | 30.05 |
|                           | middle | 31.05                   | 2.721   |       | 34.27                           | 2.188  |       | 33.02                             | 4.779**  | B     | 29.62                   | .963    |       |
|                           | low    | 29.10                   |         |       | 33.19                           |        |       | 30.87                             |          | A     | 28.68                   |         |       |
| Problematic communication | high   | 29.58                   |         |       | 33.68                           |        |       | 31.45                             |          |       | 28.62                   |         |       |
|                           | middle | 30.85                   | .959    |       | 34.22                           | .551   |       | 32.25                             | 2.114    |       | 29.20                   | 2.353   |       |
|                           | low    | 30.62                   |         |       | 34.68                           |        |       | 33.18                             |          |       | 30.77                   |         |       |
|                           |        | Linguistic intelligence |         |       | Interpersonal intelligence      |        |       | Intrapersonal intelligence        |          |       | Naturalist intelligence |         |       |
|                           |        | M                       | t/F     | D     | M                               | t/F    | D     | M                                 | t/F      | D     | M                       | t/F     | D     |
|                           |        | Open communication      | high    | 37.88 |                                 | B      | 44.72 |                                   | B        | 37.69 |                         | B       | 40.88 |
|                           | middle | 36.54                   | 5.395** | B     | 42.92                           | 4.040* | AB    | 35.73                             | 6.835*** | B     | 40.08                   | 6.597** | B     |
|                           | low    | 33.78                   |         | A     | 41.56                           |        | A     | 34.70                             |          | A     | 36.63                   |         | A     |
| Problematic communication | high   | 34.82                   |         |       | 41.89                           |        |       | 34.99                             |          | A     | 38.06                   |         |       |
|                           | middle | 35.96                   | 1.946   |       | 43.50                           | 1.938  |       | 36.05                             | 3.965*   | AB    | 39.22                   | 2.039   |       |
|                           | low    | 37.03                   |         |       | 44.07                           |        |       | 37.31                             |          | B     | 40.66                   |         |       |

\*p<.05, \*\*p<.01, \*\*\*p<.001

다. 이때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점수의 분포에 따라 각각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방형 의사소통에 따라서는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지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지능은 부모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거나 중간정도 사용하는 집단이 적게 사용하는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대인관계지능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 적게 사용하는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문제형 의사소통에 따라서는 개인이해 지능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집단보다 적게 사용하는 집단에서 개인이해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형 의사소통일수록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지능이 높았으며, 문제형 의사소통일수록 개인이해지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아동의 다중지능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분석

아동의 다중지능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전에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아동의 다중 지능 각각의 하위변인들 간의 상호상관 계수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보는바와 같이 회귀 분석에 포함된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가 .70을 넘는 변인이 없고, VIF계수들도 4.0 이상을 넘는 변인이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동의 다중지능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 변인 간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보는바와 같이 먼저 음악지능에는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아가, 그리고 부모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덜 사용할수록 아동의 음악 지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parenting behavior,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children's multiple intelligence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 1. Warmth • acceptance               | 1      |        |        |        |        |       |       |       |       |       |       |       |    |
| 2. Rejection • restriction           | -.40** | 1      |        |        |        |       |       |       |       |       |       |       |    |
| 3. Permissiveness • non-intervention | -.19** | .12*   | 1      |        |        |       |       |       |       |       |       |       |    |
| 4. Open communication                | .59**  | -.31** | -.22** | 1      |        |       |       |       |       |       |       |       |    |
| 5. Problematic communication         | -.38** | .49**  | .39**  | -.46** | 1      |       |       |       |       |       |       |       |    |
| 6. Musical intelligence              | .28**  | -.30** | -.10   | .24**  | -.25** | 1     |       |       |       |       |       |       |    |
| 7. 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 .14*   | -.26** | .20**  | .13*   | -.17** | .54** | 1     |       |       |       |       |       |    |
| 8. Logical-mathmatic intelligence    | .29**  | -.20** | -.09   | .36**  | -.23** | .28** | .37** | 1     |       |       |       |       |    |
| 9. Spatial intelligence              | .09    | -.11   | -.02   | .06    | -.15*  | .41** | .57** | .39** | 1     |       |       |       |    |
| 10. Linguistic intelligence          | .18**  | -.06   | -.13*  | .19**  | -.17** | .50** | .55** | .48** | .60** | 1     |       |       |    |
| 11. Interpersonal intelligence       | .34**  | -.15** | -.12*  | .37**  | -.24** | .52** | .53** | .52** | .47** | .57** | 1     |       |    |
| 12. Intrapersonal intelligence       | .29**  | -.16** | -.14*  | .37**  | -.18** | .46** | .50** | .56** | .47** | .59** | .58*  | 1     |    |
| 13. Naturalist intelligence          | .13**  | -.07   | -.13*  | .18**  | -.16** | .36** | .48** | .40** | .59** | .55** | .50** | .51** | 1  |

\*p<.05, \*\*p<.01

변인은 아동의 음악지능을 26%정도 설명하고 있었다. 신체운동지능에는 부모의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쳐 부모가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덜 사용할수록 신체운동지능이 높게 나타났으

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1% 정도로 나타났다. 논리수학지능에는 개방형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쳐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논리수학지능이 높았으며, 이들 변인은 논리수학지능을 27%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Table 7. The effect of the related variables to the children's multiple intelligence

| Variables                         | Musical intelligence |        |          | 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        |          |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        |         | Spatial intelligence |        |          |
|-----------------------------------|----------------------|--------|----------|---------------------------------|--------|----------|-----------------------------------|--------|---------|----------------------|--------|----------|
|                                   | B                    | β      | t        | B                               | β      | t        | B                                 | β      | t       | B                    | β      | t        |
| Grade                             | -0.739               | .0781  | 1.434    | -.5251                          | -.0611 | -1.012   | -.3691                            | -.0461 | -.8451  | -.2421               | -.0261 | -.4341   |
| Gender                            | -4.768               | -.3091 | -5.606** | 1.2171                          | 1.0861 | 11.416   | -1.178                            | -.0901 | -1.262  | 4.2681               | .2771  | 4.587**  |
| Father education                  | -0.141               | .0191  | 1.292    | .1931                           | 1.0281 | 11.399   | 1.6541                            | .1021  | 1.5691  | -.1831               | -.0241 | -.3471   |
| Mothereducation                   | -1.056               | .1151  | 1.870    | .1541                           | 1.0181 | 1.2701   | -.1041                            | -.0141 | -.2181  | -.0001               | .0071  | .1041    |
| Income                            | -0.335               | .0511  | .858     | .1901                           | 1.0321 | 1.4831   | 2.5441                            | .0051  | .0761   | .6911                | .1061  | 1.6141   |
| Warmth • acceptance               | -0.128               | .1371  | 1.850    | -4.701                          | -.0551 | -.6641   | 7.6821                            | .0981  | 1.2911  | -.0001               | .0621  | .7511    |
| Rejection • restriction           | 1.140                | -.1631 | 2.510*   | -.1821                          | -.2331 | -3.230** | -2.801                            | -.0391 | -.5881  | -.0151               | -.0181 | -.2491   |
| Permissiveness • non-intervention | 1.6800               | -.0591 | -.970    | -.1991                          | -.1861 | -2.807** | -2.500                            | -.0261 | -.4191  | -.0011               | .0311  | .4691    |
| Open communication                | 19.452               | .0821  | 1.086    | 5.4871                          | 1.0521 | 1.6271   | .1721                             | .1761  | 2.320*1 | -.0041               | -.0781 | -.9541   |
| Problematic communication         | 1.9900               | -.0791 | -1.080   | 1.5071                          | 1.0091 | 1.1111   | -5.200                            | -.0051 | -.0661  | -.2191               | -.1701 | -2.443*1 |
| R <sup>2</sup>                    | .255                 |        |          | .108                            |        |          | .271                              |        |         | .117                 |        |          |
| F                                 | 8.005**              |        |          | 2.783**                         |        |          | 8.470**                           |        |         | 3.060**              |        |          |

  

| Variables                         | Linguistic intelligence |        |         | Interpersonal intelligence |        |         | Intrapersonal intelligence |        |         | Naturalist intelligence |        |        |
|-----------------------------------|-------------------------|--------|---------|----------------------------|--------|---------|----------------------------|--------|---------|-------------------------|--------|--------|
|                                   | B                       | β      | t       | B                          | β      | t       | B                          | β      | t       | B                       | β      | t      |
| Grade                             | .5831                   | .0571  | .9991   | 1.0181                     | .0911  | .15991  | .7551                      | .0841  | 1.6781  | .8441                   | .0751  | 1.1861 |
| Gender                            | 5.0681                  | .3021  | 5.236** | 2.2111                     | .1221  | 2.115*  | 1.5731                     | .1201  | 2.120*  | 1.4291                  | .0771  | 1.2141 |
| Father education                  | -.0021                  | -.0101 | -.1551  | .3991                      | .0451  | .67511  | -.0091                     | .0141  | .2201   | -.2931                  | -.0321 | -.4391 |
| Mothereducation                   | 1.1861                  | .1191  | 1.8531  | .3761                      | .0351  | .54611  | -.0031                     | .0041  | .0701   | -.1821                  | -.0721 | -.2471 |
| Income                            | .8861                   | .1241  | 2.003*  | .2371                      | .0311  | .48711  | .1891                      | .0341  | .5541   | .8101                   | .1641  | 1.5121 |
| Warmth • acceptance               | .0021                   | .0771  | 1.0001  | .1621                      | .1481  | 2.009*  | .0021                      | .0291  | .3861   | .9031                   | .2341  | 2.912* |
| Rejection • restriction           | -.0041                  | .0501  | .7361   | -.0021                     | -.0281 | .41811  | -.0021                     | -.0351 | -.5231  | -.0041                  | .0431  | -1.359 |
| Permissiveness • non-intervention | -.1751                  | -.1371 | -2.173* | -.0071                     | -.0521 | -.8171  | -.0071                     | -.0771 | -1.233  | -.1311                  | -.0941 | -1.359 |
| Open communication                | .0071                   | .0561  | .7231   | .3241                      | .2391  | 3.054** | .3621                      | .3681  | 4.767** | .1531                   | .1111  | 1.2661 |
| Problematic communication         | -.0021                  | -.0531 | -.7011  | -.0051                     | -.0341 | -.450   | -.0061                     | .0641  | .85411  | -.0081                  | -.0531 | -.6351 |
| R <sup>2</sup>                    | .187                    |        |         | .206                       |        |         | .209                       |        |         | .158                    |        |        |
| F                                 | 5.716*                  |        |         | 5.960**                    |        |         | 6.228**                    |        |         | 3.762**                 |        |        |

\*p<.05 \*\*p<.01

간지능에는 아동의 성별, 문제형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쳐 남아가, 그리고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덜 사용할수록 공간지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들 변인은 1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언어지능에는 아동의 성별, 월수입, 허용·방임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여아가, 그리고 월수입이 많으며 부모가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덜 사용할수록 언어지능이 높았으며, 이들 변인은 19%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대인관계지능에는 아동성별, 온정·수용 양육행동, 개방형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쳐, 여아가 그리고 부모가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대인관계지능이 높게 나타났고 이들 변인은 21% 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개인이해지능에는 아동성별, 개방형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아가,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개인이해지능이 높았으며 이들 변인은 21% 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자연지능에는 부모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쳐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연지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변인은 1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아동 성별과 월수입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변인이 아동의 다중지능에 하위요인 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인천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4, 5, 6학년 남녀 아동 321명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아동의 다중지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음악지능과 공간지능에서는 여아가, 논리·수학지능에서는

남아가 높게 나타났다. 음악지능과 공간지능이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은 장영숙 등(2003), 김창복 등(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논리·수학지능이 남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논리·수학지능이 높다고 보고한 문용린과 김주현(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월수입이 많을수록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이 높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이 높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음악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특히 부모의 교육정도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일수록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지능 등 공간지능을 제외한 다중지능 전체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강인숙 2007)와 일치하였고, 월수입이 많을수록 유아의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김향자 2000; 정대현 2006)와 일치한다. 즉, 아동의 다중지능은 아동의 성별, 월수입,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다중지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부모가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지능이 높았으며, 부모가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적게 할수록 아동의 개인이해 지능이 높았고, 부모가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적게 할수록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지능이 높았다. 이는 어머니가 온정적으로 양육행동을 할수록 대인관계 지능이 높고, 대부분의 다중지능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서동미 1997)와 일치하였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 때 대부분의 지능들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일 때 낮은 점수를 나타낸 선행연구(김은영 1997; 김향자 2000)와도 일치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자녀의 행동이나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아동이 자

신을 보다 잘 이해하고 타인을 신뢰하며 부모에게 배운 대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고 주변을 탐색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라 아동의 다중지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형 의사소통일수록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지능이 높았으며, 문제형 의사소통일수록 개인이해지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동의 다중지능 수준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개인이해지능, 음악지능 순으로 높은 관계를 나타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기능적이고 문제형인 의사소통은 아동들의 다중지능과 부적인 상관을 나타낸다는 백승미(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다중지능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다중지능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개인이해지능,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대인관계지능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권정애(2008)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아동이 부모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주변 환경과 사물에 대한 조직적인 통찰 등을 통해,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다중지능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넷째, 아동의 다중지능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음악지능에는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아가 그리고 부모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덜 사용할수록 아동의 음악 지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신체·운동지능에는 부모의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쳐 부모가 거부·제재 양육행동과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덜 사용할수록 신체운동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논리·수학지능에는 개방형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쳐, 부

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논리·수학지능이 높았으며, 공간지능에는 아동의 성별, 문제형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쳐 남아가, 그리고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덜 사용할수록 공간지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언어지능에는 아동의 성별, 월수입, 허용·방임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여아가, 그리고 월수입이 많으며 부모가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덜 사용할수록 언어지능이 높았으며, 대인관계지능에는 아동성별, 온정·수용 양육행동, 개방형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쳐, 여아가 그리고 부모가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대인관계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이해지능에는 아동성별, 개방형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아가,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개인이해지능이 높았으며, 자연지능에는 부모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쳐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연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들을 수용해 줄 때 대인관계지능과 자연지능이 높았으며, 자녀를 거부하거나 제재를 덜 가할 때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이 높았다. 또한 지나치게 허용적 이거나 방임하지 않을 때 신체운동지능과 언어지능이 높았다. 또한 자녀와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논리수학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이 높았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할수록 공간지능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 성취적일수록 다중지능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는 강인숙(2007)의 연구, 부모가 개방형 의사소통을 사용할수록 다중지능의 하위영역, 특히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는 백승미(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가 온정적일수록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이 높다는 김은영(1997)의 연구, 어머니가 애정적일수록 음악지능이 높고, 적대적일수록 공간지능, 자연지능이 낮다는 조덕제(2001)의 연구, 어머니의 애정, 자율적일수록 음악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이 높다는 최영희(2004)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그 구체적인 변인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부모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인 양육태도로 아동을 양육하고, 부모-자녀 간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아동의 다중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동의 다중지능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라 하위변인 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성별, 부모의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통이 아동의 다중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라 아동의 다중지능이 계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다중지능의 발달을 위해서는 올바른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을 위해 부모는 자녀에게 충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자녀에게 자유로운 표현과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를 수용하는 양육태도를 보인다면, 아동이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고 타인을 신뢰하며 부모에게 배운 대로 타인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고 주변을 탐색하는 능력을 가져, 대인관계지능, 자연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언어지능 등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개방적,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동은 부모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주변 환경과 사물에 대한 조직적인 통찰 등을 통해 논리수학지능, 개인이해지능, 대인관계지능, 공간지능 등이 발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보편성이 낮으므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라 전체의 아동에게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부모가 지각한 자료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지각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다중지능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아동의 다중지능 연구에 관한 부모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자녀양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하고,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추후 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한 양육행동,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만을 분석하였으나, 실제로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아동이 지각한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다중지능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중지능과 환경 변인들과의 연구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부모요인 뿐 아니라 보육경험, 교육기관에서의 활동 등 다양한 환경 변인들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동 개인의 내적 요인 및 다른 발달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다중지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교 및 사회에서는 아동의 다중지능 계발을 위해 효율적인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기법에 대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의 성별도 음악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등에 관계되는 중요한 변인

으로 나타났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성별을 고려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인숙(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지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정애(200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희(1998) 다중지능이론. 한국교육과정학회 16(1), 299-330.  
 김미호(1989) 부모, 학동기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 사고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창복(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중지능영역과의 관계 연구. 인하 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향자(2000)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자(2004) 다중지능과 가정변인이 초등학교생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현주(1997)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논리 사고의 관계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용린 · 김주현(2004)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진로 교육 가능성 탐색. 진로교육연구 17(1), 1-19.  
 민혜영(1991)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방문희(199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승미(200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동미(199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수정(199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전사춘기 자녀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말애(1985)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와 취학 전 아동의 지능발달과의 관계. 경희 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만(1997) 다중지능이론과 초등학교 통합단원구

성. 초등교육연구 11, 157-276.  
 이인숙(199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감성 지능과의 관계.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은혜(2002) 초등학교생의 다중지능 및 정서지능 발달특성 분석.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영숙 · 강경석 · 송경희(2003) 유아의 다중지능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3), 247-269.  
 장영애 · 이영자(2007)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49-166.  
 전선재(2003)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지능발달 및 창의성과의 관계. 한국교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대현(2006)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유아-교사관계, 다중지능과 초등학교 적응간의 관계.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태희(1998)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교수학습 활동 개발 및 효과 분석.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현숙(2005)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다중지능발달과의 관계. 경원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덕제(2001)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지능영역과의 관계.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희(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민(2001) 초등학교생의 다중지능과 창의성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rmstrong T(1994) Multiple Intelligences in the Classroom. Associatio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Development. 전윤식 · 강영심 역(1997) 복합지능과 교육.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Barnes H, Olson DH(1982)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Gardner H(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Y: Basic Books.  
 Gardner H(1997) Are there additional intelligences? The case for naturalist, spiritual, and existential intelligences. Gifted education press quarterly 11, ERIC Reports.  
 Shearer CB(199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ple intelligence assessment scale for childre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05th. ERIC Reports.  
 Skeels HM(1996) Adult status of children with contrasting early life experiences: a follow up stud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05.  
 Thomas EJ(1977)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The Free Press.